

[기획] 한국 노인 애가(哀歌)...“주운 파지 들고 면접 보러 갑니다”

기사승인 2015-04-24 04:00:55



“정말 일 하고 싶어요. 시켜만 준다면 어떤 업무든 잘할 자신 있어요”

이제 사회생활에 발을 담그려는 20대 초반 취업준비생의 각오가 아니다. 검은 머리보다 흰 머리가 많은 70대 취업 지원자의 하소연이다. 지난 22일 서울 성북구청에서 열린 취업박람회는 일자리를 구하는 노년층의 방문으로 가득 찼다. 그 누가 자신이 고단한 노후를 보내리라 예상했을까? 구직을 희망하는 그들의 뒷모습에서는 기대감보다 회의감이 짙게 느껴졌다.

“준비는 돼 있는데...”

이날 무료로 진행된 이력서 사진 촬영 행사에 줄을 선 68세 김모씨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내 또래 할머니들이 학교 급식실 같은 곳에 일주일 중 세 번 나가 한달 20만원을 받는다고 들었다. 그거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줄을 섰다. 하지만 나는 다리가 아파 할 수도 없다”며 “몸만 성하면 청소일이라도 하고 싶은데 다리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아픈 자식 한 명과 같이 사는데 병원비 생각하면 돈은 벌어야겠고. 지금도 파지 줍다 여기서 직업 알선해 준다고 왔다. 너무 살기가 힘들다. 파지 줍기로는 생계유지가 안 된다”고 토로했다. 실제 그의 다리 밑에는 방금까지 주어진 빈 박스와 폐지가 가득했다. 점심도 못 먹고 일을 하다 왔다는 그는 결국 눈물을 보였다.

박람회 부스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주변을 서성이던 71세 송모씨 역시 “일을 하고 싶어서 경기도에서 왔는데 나이 때문에 걸린다. 아직 건강한 데 써 주는 곳이 없다. 힘든 일도 상관없다. 나이 제한만 좀 늘려줬으면 좋겠는데... 요즘 일흔은 옛날 같지 않고 젊다. 일을 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너무 답답하다. 마음은 젊었을 때랑 똑같다”며 말을 줄였다. 그는 한참을 서성이다 결국 집으로 발길을 돌렸다.

올해 칠순을 맞이한 박모씨는 “취업 안 되는 건 젊은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부에서 주는 기초연금도 세금 내면 끝이다. 대책이 있으면 좋겠다. 한달에 얼마씩 주는 것보다 일자리를 원한다. 집에서 노느니 왔다

HOT NEWS

- 1 조국 “최태원·노소영 재산 죄수익”
- 2 망종(芒種) ‘윗논에선 모·베고’
- 3 KIA 이의리, 팔꿈치 수술·결정”
- 4 “미필적 고의 따른 살인”·병 사망사건’ 중대장 고발
- 5 경주 초등학교서 ‘불’...’인

KUKI 인터뷰

"AI시대, 삶의 지혜 더 중요
고 능력 키워야" [쿠



쿠키 오리지널

급발진 진형



제조물책임법, 끝

자식담보대출

특별취재 청춘, 망

갔다 하면서 일하는 게 낫다. 젊은 사람들 임금은 최저 임금제에 맞춰서 줘야 하지만 우리는 그럴 필요 없다. 집에 있으면 많이 답답하고 아직 힘도 있고 꿈도 있는데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 더 주눅이 드는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취업박람회 참여 한 한 용역업체 관계자는 “우리는 65세까지 이력서를 받고 있지만, 지원자는 대부분 70~80세가 넘는 분들”이라며 “나이 때문에 채용이 쉽지 않은 걸 알면서도 생계가 급하다 보니 문을 두드리시는 어르신들이 많다”고 밝혔다.

이어 “고령의 지원자를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체력이다. 회사 차원에서는 부담일 수밖에 없다. 현장에서는 젊은 분들을 원한다. 경비 일도 나이가 많으면 입주민들이 꺼려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면접을 보다 보면 ‘돈보다 일하고 싶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다. 방금 오셨던 82세 어르신도 ‘난 아직 건강하고 일을 하고 싶다. 급여는 안 받아도 좋다’고 말씀하셨다”며 “하지만 60대 이상은 4대 보험비도 많이 나가고 65세 이상은 고용보험도 해당 안 된다. 그것 때문이라도 고용을 기피하게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너무 고령의 지원자가 오면 돌려보내기도 쉽지 않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드리는 게 전부다. 우리도 가슴이 아프다”고 털어놨다.

인터뷰 도중에도 관계자는 분주했다. 구직 확답을 받기 위해 전화를 건 노년층의 지원자와 실낱같은 기회를 잡기 위해 마른 손으로 멍쩍게 우유를 건네는 노인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의 취업은 치열한 전쟁이었다.

노인 빈곤율 50% 육박, OECD 회원국 1위의 오명

지난 1월 임완섭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 부연구위원이 보건복지 이슈&포커스에 발표한 ‘최근 빈곤 및 불평등 추이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보사연의 ‘2014 빈곤통계연보’와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를 분석한 결과 2013년 노인 빈곤율은 48.0%였다.

이는 전체 빈곤율 13.7%보다 3.5배나 높다. 전체 빈곤율은 지난 2012년 14%에서 0.3% 포인트 하락했지만, 노인 빈곤율은 2012년과 2013년이 같았다.

또 인구 유형별 빈곤율을 봤을 때 노인층과 함께 1인 가구의 빈곤율이 심각한 편이었으며 1인 가구의 빈곤율은 47.2%로 전년 48.1%보다는 떨어졌지만, 여전히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2012년 기준 48.5%로 OECD 가입국 중 가장 높다. 회원국 평균의 4배나 된다. 그러나 이에 비해 연금 소득대체율은 최하위권 수준이다.

지난 3월 한국노동연구원의 ‘노인의 빈곤과 연금의 소득대체율 국제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2012년을 기준으로 한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5.2%로 OECD 회원국 평균인 65.9%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이는 주요 국제기구가 권고하는 70~80% 수준을 크게 밑도는 수치며 베이비붐 세대들의 은퇴가 본격화되면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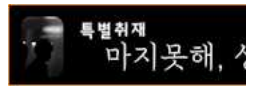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용호 교수는 23일 “노동시장 문제뿐만 아니라 가족에 의한 지원, 사회적 돌봄의 기능 등 여러 가지 요소가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노인 빈곤율이 급격하게 개선될 것 같진 않다”며 “그래서 ‘공적연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하지만 우리의 공적연금은 기본적으로 취약하다. 국민연금은 노인들이 젊어서 사회에 기여 했음에도 사각지대가 많고, 소득 하위 70%에 기초연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20만원이란 액수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연령차별주의가 매우 심하다. 65세가 넘어서도 건강하고 사회생활 경력이나 능력 등 훌륭한 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객관적 실력에 따라 채용하기보다는 ‘노인이니까 안된다’고 생각해 우선적으로 배제시키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다”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차별금지법을 통해 취직할 때 나이를 명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도 있다. 나이에 따른 노인의 사회적 차별이 우리나라는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취업을 원하는 노인은 더 많아질 텐데 그런 분들을 사회 적재적소에 쓰지 못하면 인적낭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노인들의 일자리가 경비, 청소 등 한정적인 점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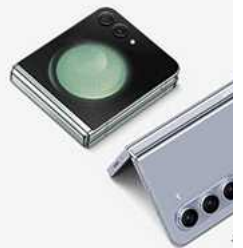
전 교수는 “사실, 노인 일자리 취업률은 우리나라가 30% 정도다. 선진국 같은 경우 10%밖에 되지 않는다. 강요된 노동



실시간 기사 “여아 조기임
높이자”...홍



Samsung
Newsroom



KUKI 포토 >



민희진, 2차 기자회견... “
해”



이 있기 때문이다. 노인 절반이 빈곤층인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워 현실을 헤쳐 나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일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라며 “현재 정부의 노동, 일자리, 연금 정책이 등이 모두 개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가족 기능, 부양의 변화까지 종합적으로 생각하면서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민수미 기자 min@kmib.co.kr [기사모아보기](#)
[Copyright @ KUKINEWS. All rights reserved.]

관련기사

청년 “일자리·주거 공정 필요”...지방에 청년친화 인프라 구축해야
‘바다를 지켜주세요’ 어린이들의 외침 [쿠키포토]
인천공항에도 떨어진 北 오물풍선...한때 운항 중단
“미필적 고의 따른 살인”...前 의협회장, ‘훈련병 사망사건’ 중대장 고발
망종(芒種) ‘윗논에선 모 심고 아랫논은 보리 베고’



Web3.0 참여보상 서비스!

읽고 공유하면
NEWS 토큰 보상이

로그인하러가기

PUBLISHlink

좋아요 117 추천해요 56 후속기사 원해요 12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NFT구매 구독

정산예정 NEWS 123,456,789

10News가 적립되었습니다.

쿠키칼럼



무기명 투표가 필요한 이유

KUKI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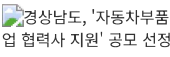
휴일 홍천강서 물놀이하던 20대 숨져



청년 “일자리·주거 공정 필요”...지방에 청년친화 인프라 구축해야



창원 본포교 부근 보트 전복...40대 1명 심정지 상태 이송



경상남도, '자동차부품업 협력사 지원' 공모 선정

경상남도, '자동차부품업 협력사 지원' 공모 선정

제조물책임법, 끝까지 간다

한동훈·이재명이 먹은 ‘지구당 부활론’...당 대표 친위대 우려도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프랑스 몽펠리에와 문화·교육·경제 교류·협력

의료공백에 100일간 1조원 투입...“재정 건전성 우려”

보험사, 펫보험 활성화 속도 내지만...제도 개선 ‘지지부진’

‘만세 인사’ 이정호 감독 “광주 팬들께 고맙다는 의미” [K리그]

추천콘텐츠





Powered by

인기뉴스

쿠키뉴스는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겠습니다. 인신공격, 명예훼손, 비방성 내용이 담긴 댓글은 저희가 차단할 수 있습니다.

등록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미필적 고의 따른 살인

AD

"취젓" 등
에서 싹.

집값 최
안한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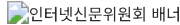
AD

탈모인 :
지 않으

보건의료
원, 청소



회사소개 | 발행인·편집인 : 노석철 | 고충처리 | 청소년보호정책 (책임자:이영수) | 쿠키뉴스 취재보도 가이드라인 | 제호 : 쿠키뉴스 | 등록번호 : 서울아00127 | 등록일 : 2005-11-11 | 주소 :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상암동) | 대표전화 : 02-3153-4434 | 팩스 : 02-3153-4444 | 기사문의 : 02-3153-4452 | 방송문의 : 02-3153-4470 | 사업및콘텐츠제휴 : 02-3153-4432 | 광고문의 : 02-3153-4446



Copyright © KUKI NEWS. All Rights Reserved.